기 고 임 영 삼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추석 벌초 안전하게

추석은 예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절의 하나로 한가위, 가위, 중추절이라고도 한다.

추석에는 온갖 음식을 만들어 먹고 가무를 즐겼다고 한다. 특히 햅쌀로 밥을 짓고 송편을 빚으며 새 옷이나 깨끗이 손질된 옷을 입는다.

또한 추석날 아침에는 차례를 지내고 모인 사람들이 음복한 뒤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를 한다.

성묘에 앞서 벌초는 미리 끝내두거나 성묘할 때 함께하기도 한다.

이러한 우리 조상들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와운 풍속들이 나타난다.

특히 고향을 방문하는 전통은 전 국민의 75%가 지키는 풍속으로 전국의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열차표가 매진되는 '민족대이동'이 그것이다.

고향의 풍경과 음식 그리고 친한 사람들과의 만남 등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하지만 즐거운 추석 명절에 조그마한 부주의나 방심이 명절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해마다 추석을 앞두고 1개월 여 동안 벌쏘임 사고가 연평균의 7~9배로 나타나 이 기간에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벌초 시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8~9월은 높은 기온과 화창한 날씨 등에 영향을 받은 벌들이 본격적으로 번식과 세력 확장을 하기 때문에 활동이 왕성해 진다.

이 시기에는 말벌의 활동이 왕성한데 말벌의 독성은 꿀벌 500여 마리의 독성과 맞먹는다. 게다가 말벌의 벌침은 20~30번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말벌에 쏘이면 체질적으로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은 심한 통증과 부종을 나타낼 수 있으며 호흡기 등이 부어 기도가 막히거나 심장활동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벌초를 하기 전에는 긴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벌집의 위치를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또한 청량음료, 수박 등 단음식을 주위에 두지 말고 벌을 유인할 수 있는 향수·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말벌은 매실이나 막걸리를 좋아 한다.

벌초 시 막걸리나 매실음료 등은 말벌을 유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벌이 가까이 접근한 경우에 신문이나 손수건 등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큰 동작을 하여서는 안된다.

최대한 움직임을 작게 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여 벌들이 스스로 돌아 갈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깨끗이 씻은 후 얼음찜질을 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를 바른 다음 안정을 취한다.

체질에 따라 과민반응에 의한 쇼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추석명절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보냈다하여 "1년 12달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렇듯 풍성한 추석을 맞으려면 벌초에서부터 안전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여 행복한 추석명절이 되기를 바란다.

社 說

주류 부담금 신중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위한 '묘안'인가, 서민증세 '꼼수'인가. 소주·맥주 등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주류에 별도의 부담금이 매겨지면 소주·맥주의 가격은 지금보다 20~30% 오르게 된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서민 등 국민적 반발이 거센 이유다.

이른바 '소맥(소주·맥주) 부담금'에 대한 건강보험의 입장은 '필요성은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7년 만에 적자가 예상된다. 1조1000억원 규모다. 내년 적자폭은 3조7000억원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조원에 달하는 적립금도 202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6월 내년도 건보료를 3.49%나 올렸지만 적자 폭이 커지면서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점차 앞당겨지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이러한 '재정 확충'하는데 소맥 부담금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류 부담금은 재정을 확충하면서도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도한 음주로 건강이 악화된 사람들의 치료비가 건강보험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비음주자 입장에선 과도한 음주로 병에 걸린 사람들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더욱 큰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다.

실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9조4000억원(2013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달한다. 흡연(7조1000억원)이나 비만(6조7000억원)보다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질병 등의 비용이 훨씬 큰 셈이다.

문제는 '민심'이다. 담배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치솟게 되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안다면 주류 부담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둔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한가위로 분주한 시장 우리가 예방하자

한가위 명절 추석을 앞두고 명절이 다가오면 타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들이 시골로 내려와 가족 및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시장을 들러 식?재료를 구입하게 된다.

이토록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도 화재·구조·구급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 한 예를 들면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을 하였다.

또한 그 이후에 여수 수산시장에서도 화재가 발생을 하였다.

우리나라 시장을 살펴보면 점포들이 붙어 있어 화재가 한 곳에서 발생하게 되면 삽시간에 확산된다.

그렇게 되면 1시간도 되지 않아 초대형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출동을 하여 인명검색을 하며,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인들의 통제가 필요하며 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가장 첫 번째인 화재현장 장소를 정확지점을 이야기해주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해주게 되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는 상황을 초기에 진화할 수가 있다.

또한 응급환자가 생기는 것 또한 정확한 위치를 안내해주면 병원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주민들과 협력을 하여 비상 시 소방공무원들을 도움을 주게 되면 사력을 다하여 많은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며,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이 다가오기를 희망한다.

김태현 /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지역민의 안전, 준법집회 문화가 만든다

집회 현장에는 대규모 집회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생각보다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집회 규모를 떠나 집회 자체의 안전확보 및 교통관리를 위해 많은 경찰력을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비교통 부서 외에도 지역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 인력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신의 생존권을 주장할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집회 시위 자체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다만 인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과격한 집회나 대규모 집회가 발생할 경우 지역민의 24시간을 책임지는 경찰 인력까지 집회 시위 관리에 배치되다보니 실제 민생치안과 관련되는 인력에는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최소한으로 투입될 수 있는, 준법 집회 시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력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선 경찰뿐만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의 성숙한 자세가 절실하다.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집회 시위를 관리한다면, 다른 인력들은 자연스레 본래의 임무에 더욱 충실 할 것이며, 그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집회 시위를 신고한 참가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준법집회를 당연시 여긴다면, 이것이 결국 지역민의 체감안전 확보와 직결된다.

준법집회 문화의 정착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백승진 /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배우는 故事成語

宣 베풀 선
威 위엄 위
沙 모래 사
漠 넓을 막

宣威沙漠

▷뜻: 장수(將帥)로서 그 위엄(威嚴)은 멀리 사막(沙漠)에까지 퍼짐.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222-5547
팩스 (062)222-5548
광고국 (062)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010-5330-553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